

투데이 칼럼

#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고창, 대한민국 최고 다동이 고장되다

**입** 춘대길(立春大吉), '건양 다경(建陽多慶)' 큰 길운이 있고 좋은 일과 경사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길 기원하는 말이다. 혹독한 추위에도 삼라만상(森羅萬象)은 봄을 맞이하고 꽃을 피우기 위해 부실히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오래전 한 결혼식에서 들었던 주례사가 생각난다.

- "오늘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두 사람은 어린아이의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고, 일하는 소리가 들리고, 책 읽는 소리가 흘러나오는 가정을 만들기 바란다." -

그러나 요즘 희망의 새싹이며 생의 보람이고 행복의 원천인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듣는 것은 쉽지 않다. 작금의 시대는 마치 예쁜 꽃들이 없는 화인 같다.

저출산 문제는 이제 시대적 사명으로 극복해야 될 가장 큰 숙제가 됐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인구 늘리기 시책에 총력을 기울이며 각종 출산장려정책을 펼치고 있다.

매년 10월 10일을 임신부의 날로 지정하여 각종 행사와 건강교실도 운영하고, 난임 부부를 위해 검사비용 지원과 인공수정 시술비도 지원

하는 등 갖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처럼 많은 출산정책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의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얼마 전 사무실에 모 TV방송국 PD가 찾아왔다. 고창군이 전국에서 셋째 아이 출산율이 가장 높는데 그 이유와 비결이 있는지, 그리고 추진하고 있는 우수한 시책에 대해 물었다.

무엇 때문에 고창군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셋째아이 출산율을 보이는지 꿈꿨던 생각이 났다. 선생이를 출산하는 가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 고창에서 아이를 낳아 훌륭하게 키울 수 있는 자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우선 가까운 곳에 산부인과가 있고 이용이 편리해야 한다.

고창은 농촌지역이지만 뛰어난 의료진이 있는 분만 산부인과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셋째를 출산하면 50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넷째, 다섯째를 출산하면 장려금을 더 지원된다. 고창군에 출생신고를 하는 신생아에게는 각종 신생아용품이 들어있는 축하선물도 주고 있다.

또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이나 예방접종 사업도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되어 있다.

겨울철이면 유행하는 계절 독감 예방을 위해 6세 이하의 모든 어린이에게 무료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고 다동이 부모에게도 무료로 예방접종을 해주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에서 운영 중인 차량이나 놀이

기구를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새싹들의 건강생활체험 터도 상시 운영하고 있다.

고창은 특히 40대 이하의 젊은 귀농 인구가 많다. 6만 인구 중에 20%정도가 귀농·귀촌한 사람이며 복분자, 풍천장어, 수박, 고추, 매론, 고구마 같은 특산품이 연중 생산·판매되고 있어 지역에 생기가 넘친다. 그 만큼 지역 경제가 살아 있고 풍요로운 고창이다 보니 셋째를 많이 낳는 다동이 고창이 되지 않으나 생각한다.

이제 시대가 변해 젊은이들이 추구하는 생각과 사고도 많이 바뀌었다. 기성세대들은 책임감을 갖고 따듯하고 여유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더 많이 노력해야 된다.

정유년은 풍요와 다산, 뜨거운 열정, 견고한 에너지를 상징하는 닭의 해다. 바라건대 금년에는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풀고나갈 건강한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길 기원한다.

더불어 건강하고 행복한 농촌지역에서도 동네방네 아이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한해가 되었으면 한다.

노창환

고창군보건소장



독자제언

## '3대 반칙 행위' 집중 단속

사회구성원 간 신뢰와 준법정신은 바로 건강한 공동체 구현의 전제 조건이다.

하지만 우리사회 일상 속 '반칙'과 '편법'은 이러한 신뢰를 저해시킨다. 건설·교통 등 안전비리, 서민을 대상으로 한 폭행·협박·갈취 행위, '금수저'로 대변되는 부유층의 비리와 편법 행위가 바로 그것이다.

이에 경찰은 지난 2월 7일부터 5월 17일까지 100일간에 걸쳐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생활 반칙, 교통 반칙, 사이버 반칙행위를 3대 반칙행위로 규정하여 집중 단속하고 있다.

첫째, 생활반칙은 국민안전에 위협하고 사회시스템 전반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초래하는 반칙이다.

교통시설물, 건설분야의 리베이트 수수와 부정입찰 등 부패비리, 입사 채용 부정비리, 성적조작, 취업알선사기 등 선별비리, 영입방체·주취폭력 등 서민불만을 야기하는 서민갈취사

범을 말한다. 둘째, 교통반칙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난폭·보복운전, 압채운전(교차로 꼬리물기·꺼어들기·전용차로 위반)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행위이다.

셋째, 사이버반칙은 개인은 물론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인터넷머뭇, 보이스피싱,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등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범죄행위를 말한다.

생활이 어려워지고 점점 각박해져 가는 세상이다. 이럴 때 일수록 공동체신뢰와 법과 원칙이 바로 서야 한다.

이번 경찰의 '3대 반칙행위' 단속은 바로 건강한 사회를 만들자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국민들도 3대 반칙행위에 대한 관심과 참여로 바로 건강한 공동체 만들기에 함께 동참 해주길 기대한다.

박주현 정읍경찰서 상동지구대 순경

사위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독자제언

## 도로위의 시한폭탄 '블랙아이스'

지난 2.4일 입춘이었지만, 뒤늦은 한파에 눈까지 왔다. 얼마 전 출근길 운전중에 블랙아이스 현상을 경험한 적이 있었다. 다행히 옆 차선에 차가 없어서 큰 사고는 없었지만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다.

블랙아이스란 얇은 얼음막이 도로를 덮으면 검은색의 아스팔트가 투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블랙아이스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사고위험성이 높길바다 커서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제설작업을 위해 도로위에 뿌린 염화칼슘이 눈과 결합하게 되면 도로 위에 남아있던 수분이 도로 표면을 미끄럽게 하는 슬라이딩 효과와 발생하기 때문에 블랙아이스 현상이 찾아온다.

어느 한 통계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건조나 습기, 결빙 등 노면 상태별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결빙으로 인한 사망자 수와 치사율이 다른사고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블랙아이스는 겨울철 교통사고의 주범이자 도로 위의 시한폭탄으

로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첫째, 겨울철에 눈·비가 내리고 영하권의 날씨가 이어지면 어디서든 결빙구간을 만날 수 있으므로 평소보다 감속주행을 하도록 한다.

둘째, 얼어붙은 길에서 급조작을 하면 차가 미끄러지거나 스핀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급출발, 급제동, 급회전을 주의해야 한다.

셋째, 타이어의 마모상태를 점검하고 적정공기압을 유지해야 한다.

넷째, 만약 차가 미끄러지는 상황이 면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핸들을 꺾어야 한다.

다섯째, 블랙아이스 사고는 운전경력과 무관한 것이므로, 빙판길에서는 절대 운전 실력을 과신하지 말고 침착하고 여유 있는 마음가짐으로 안전운행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겨울철에는 평소보다 10분 더 일찍 출발하고 위의 안전 수칙을 준수해 한결 여유롭고 안전한 운전을 하도록 하자

빅명기 순창경찰서 쌍치파출소 경위

# 사설

## 지금은 지역 발전에 힘을 쏟을 때다

지금은 지역 발전에 힘을 쏟을 때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농단으로 촉발된 탄핵과 대선 정국으로 관심사가 온통 그쪽에 쏠려 있는데 전북도는 중심을 잡아야 한다. 관심사를 이쪽으로 집중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나라가 어수선한 중에 향후의 정국이 어떻게 전개될지 궁극해도 우선 순위는 지역 발전 쪽이어야 한다. 영남과 비교해 호남이 푸대접을 받고 있는 중에 우리 전북의 경우는 그 정도가 더욱 심하다. 그러므로 전북도는 이쪽이 광주 전남과 구분돼 마땅한 별도 권역임을 중앙정부에 늘 상기시켜야 한다.

항상 말해 왔거니와 우리 지역은 그 발전상이 시원치 않다. 지금과 같은 상태라면 앞으로는 다른 광역 시도들과 비교해 그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게 뻔하다.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전북도는 지금부터라도 역척스러움을 보여야 한다. 제 몫을 온전히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래야 한다. 향토의 발전상이 시원치 않다고 했거니와 매년 확인해 보자면 그 면면들이 미미하다. 다른 지자체의 발전상과 비교해보면 이쪽의 발전은 발전 같지가 않은 것이다.

이번에 대선주자 토론회에서 한 유력 주자가 말한 그대로 전북도는 광주 전남과 구분돼 미흡한 다른 권역임을 강조해야 한다. 우리 지역에도 광주 전남과 별도로 담면 주요 현안이 있음을 알리려 한다. 정부를 상대로 계속 균형발전을 말해야 하고, 혁신도시의 발전을 말해야 하고, 새만금사업의 빠른 추진을 말해야 하고, 군산조선소의 회생을 말해야 한다. 다른 광역 지자체 지역은 인구가 나날이 불어나고 있는데 우리 전북은 거주 인구가 시군에 따라서 담보 상태이거나 줄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도는 지역 발전에 힘을 집중해야 한다. 지금이 그 좋은 기회이다. 그러므로 전북도는 고장을 기필코 발전 시키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 오랜 나후 때문에 도민들은 마음 고생이 심하다. 그 나후가 일자리의 부족과 고용의 불안정을 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전북도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제 몫을 행하는 패기를 보여야 한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하고 기존 일자리의 발달도 해야 한다. 지금은 전북도가 지역 발전에 힘을 쏟을 때이다.

## 지역인재 채용 제도화 서둘러야

지역 인재 우선 채용 제도화가 절실한 때이다. 지역 인재 채용에 대한 공론화가 활발해져야 한다. 말을 꺼냈으면 뭔가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그래서 전주시장은 물론 여러 단체장들이 지역 인재 의무 채용에 관한 법제화 등 세 가지 안전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던 거 말이다.

지역 인재 우선 채용은 말만 꺼내 놓고 시간을 팔 문제가 아니다.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공감은 하는 것 같은 데도 어찌 그에 대한 활발한 움직임이 없으니 하는 말이다. 전북도를 비롯해 도내 모든 공공기관은 지역 인재 우선 채용에 대해서 진실로 뜻을 같이 해야 한다. 예전에 했던 말을 어찌 다 생각이 난듯 간헐적으로 되풀이 해가지고는 곤란하다. 그러면 지역 인재 우선 채용은 희망사항에 그치고 만다.

대선 정국의 유력주자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전북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역 인재의 우선 채용의 필요성을 말한 모양인데 그것은 매우 잘한

일이다. 그래도 더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다. 그같은 설명이며 의의 중요하기는 해도 그게 언론 홍보용으로 이용되는 수준이라면 곤란하다. 지역 인재 채용에 대해 먼저 모범을 보여주면서 유력인사의 협조를 요구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도내 공무원 사회의 현실을 보면 지자체들의 지역 인재 고용이 저조하기에 하는 말이다. 전북도와 도내 각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보다 더 진실돼야 한다.

지역 인재 채용을 서둘러야 한다. 신규직 태만이 비정규직인데도 구태의연하면 말이 안 된다. 지역 인재 우선 채용은 지자체들에게도 의무가 돼야 한다.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기관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지역 인재 우선 채용 마련과 관련하여 관심을 갖고 있다는 식의 행보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미덥지 않다. 전북도와 각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주고 싶은 말은 분명하다. 지역 인재 채용을 위해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면 먼저 애쓰는 가운데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재근해야 한다.

##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